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현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미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모습있는 내가 모습없는 나 믿어야”

여러분과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불교는 어떤 거냐고 묻고, 불교를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거냐고 묻는데 평생이 우리의 삶이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 개인 자체를 버리고는 살 수 없는 거고 또 나 개인 자체를 안 버리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모습은 한계가 있는 거고 물질적인 모습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습은 격정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실 당시의 생명력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삼합이 한데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불성을 꼭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성이 바로 에너지 주장자, 그 에너지로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움직여지고 움직여지는 게 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습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만이 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습 아닌 나 자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습 아닌 나 자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올 때에 생명력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불성이자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을 우습게 생각해도 안되고 그렇다고 자기 모습을 우습게 생각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공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습게 들 생각하시겠지만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불성이 곧 에너지 주장자

그래서 신도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모습은 물질적이다. 그 모습이 있는 반면에 참 자기가 있으니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일체가 거기에 들고나니까 진짜로 거기가 다 맡겨 놔라. 거기가 다 놓고 가자.' 이렇게 합니다. 하늘이 쪼개지는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가 다 웃고 살자.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면 도저히 무엇을 결정지을 수도 없거니와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보이는 문제가 반이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대처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대처 못하면 보이는 데도 대처 못하게 되니 문제가 여간 큰 게 아닙니다. 생활하는 데나 사회적으로나 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 자체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이 모습을 나라고 생각지 마시고 모습 아닌 나 자체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다 못한다, 망했다, 죽는다 산다, 아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어떤 문제가 자기 앞에 닥치면 이런 죽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아무런 일 없이 생긴다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자기 불성에게 맡겨 놓으세요.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내가 나를 형성시켜서 시자르 돈 거니깐 모든 것은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거기가 다 놓으시라는 겁니다.

어떤 급한 일이 생겨도 거기가 놓고 너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아주 구절구절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한군데로 들어왔다 한군데 나갑니다. 한군데로 나왔다 한군데로 들어가고 한군데로 들어갔다 한군데로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공생입니다. 여러분이 세포 하나 하나의 생명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 각각 있다고 생각을 하니, 각각 있으면 온통 싸우고 죽고 하겠죠. 싸움이 나고 병이 걸리고 죽게 되죠.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좀 더 안우하게 살고 편리하게 살려면 그렇게 해 나가야죠. 불성이 바뀌지 않으면 성불이요 또 그냥 놓으면 불성이라는 얘기도. 불성을 바꿔 놓으면 성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결정해서 자기 주장자에, 결국은 자기 하나죠. 누가 대신 살아 주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됴므로 써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고 믿고 맡겨놓으셔야 합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도

그렇게 해서 모두 마음으로 이끌어가지 모습을 잡아당기거나 욱하거나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해 놔는데 그 울타리에 한 나무가 바로 신장들이 되고 비천상이 되어서 모두 유유히 걷는 집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모습을 그냥 놓고, 부처님을 그냥 모셔 놓고선 가만히 앉아 계신 부처님이 뭘 할까 이리요? 그러나 알고 본다면 부처님이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화해서 중생들을 건지시는지 아십니까? 모습을 알지 못하게 총각으로도 나타나고, 보살로도 나타나고, 떡 장사로도 나타나고, 술장사로도 나타나서 다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통 거기에 관심조차 없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묘법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 불성이라는 것을 주인공이라고 하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은 주인공이라는 말을 다들 잘 아시니까 외국에 가서도 그냥 주인공이라 하라고 그러죠. 만약에 탄 사람한테 불들려서, 칼잡이가 있고 칼잡한테 가다가 불들려서 돈 뺏기고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게끔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선 진실로 믿고 간다면, 그렇게 진실로서 지금 생활하는데 그렇게 하고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불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잘 믿습니까? 그냥 갖다가 놓고는, 저 독일이나 그런 데서는 고상을 걸어 놓고 하거니와 또 여기서 부처님 불상에 놓고 온통 살려달라고 빌거든요. 비는데 통신이 곧장 들어갑니다



그림 · 최주현

그걸 맑은 물로 바껴서 써라 이겁니다. 맑은 물로 바껴 쓴다면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그냥 물질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물질이 아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배우는 우리 신도님들은 터럭터럭 많이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깊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뭘 갖느냐고 그러죠. 당신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이지 내가 생각 해도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없다고만 아우성을 치지 말고 꼭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거기가 다 놓고 깨내는 것도 거기가 깨내고 넣는 것도 거기가 다 넣으세요. 그러면 한 구멍이 자진리는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은 그렇게 저거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날아가는 새도 땅에 내리면 내리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 왜 사실이 되느냐 하면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그 새한테 들어간 새도 자기가 없고 싶으면 없는 거니까요. 제가 말을 드문드문 이렇게 잘 하질 못해서 여러분이 좀 듣기가 안 되셨어요. 그렇지만 잘 듣고 한번 실질적으로 자주 자주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꼭 그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사글세 살 돈도 없어 지금 내뺏겨 거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어떡하면 살니까?" 하곤 울고 와서 그러길래 그랬어요. 이렇게 울 게 아니라 항상 너만이 살릴 수 있다고 집에 가도 그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비가 오는데 그것만 외우고 가는데 신문지가 돌돌들 말려서 대굴대굴 구르더라요. 그래서 집에 가서 구멍 뚫어진 데라도 메꾸고 하고 신문지를 집어 들고서는 집으로 갔는데 가서 그걸 퍼놓으니까 전세를 얻고도 남을 돈이 들어 있더라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고 와서 물어서 그건 당신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세를 얻고 애들하고 연탄을 사다 놓고 살았다고 그런 말을 지금까지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양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면은 더 안돼요. 그냥 내 버리고 사세요, 모든 것을 병원에서 죽는다고 진찰 받고 오죠. 그러면 죽어도 당신 주인이 죽일 거고 살아도 당신 주인이 살릴 거니깐 알아서 하라고, 모두 자기네들이 하라고 그렇게 일러주죠. 그러면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아프면 정말 거기밖에 기껏 찾으니 참 다행이라고 하고 거기가 대고는 울고 그러죠. 그렇게 하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다시 가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오직 거기가 약사고 거

기가 의사고, 보이는데 의사보다도 안 보이는데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나야요. 다 괜찮아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나는 말할 때마다 조금씩은 꼭 합니다. 세 번 네 번 시험을 봤는데도 못 본다고 그러길래 그랬습니다. 진정코 정말 네 자체가 살았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신계의 불성이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고 거기가 다 맡겨라. 거기서 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 그랬더니 정말 이번엔 불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애를 다 풀고 가자면 그런 정성이 아니고는 안되죠. 그래서 내 이번에 이 동국대학에도 병원 지으시고 이러한 데도 사람의 마음이면 다 된다. 한생각의 마음이면 우주가 다 움직여지게 될 있는데 왜 안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이 위대하신 줄 아시고 또 법이 묘법인 줄 아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뭐든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이려면 또 질문하시고요.

히려 더 큰 괴로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과연 그런 생사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불교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스님: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분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도(道)도 있는 거고 또 이 세상의 진리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또 알면서도 모르는 거고 모르면서도 모르는 아는 분들은 아시죠. 근데 그것을, 그래서 죽었다 안 죽었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덕에서 말은 하셨지만 말이 지금 아무 것도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으니깐 죽어야 너를 본다고 말을 한 겁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죽어야 이 겁대인 내가 죽어야 보는 거고, 육안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는 거고 또 내가 죽어야 부와 자가 만나고 만나면 과거 자기하고 현재 자기하고 만나면 그게 틀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틀이 아니면은 그때서야 자기를 만날 수 있다. 또 자기를 불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주인공을 믿고 모든 걸 거기가 맡겨 놓고 무조건 걸림 없이 그냥 믿고 맡기시라는 얘기도.

▲질문자: 저를 포함한 일반 중생이 그걸 믿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거수 일투족 둘 아닌 도리로 살면 만물과 더불어 걸림이 없어요

▲사회자: 질문하실 분은 한 세 분 정도입니다. 질문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단상 앞 청중석에 있는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 드린 후 스님 답이 끝나시면 인사 올리고 자리로 조용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오늘 스님 오신다고 해서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방금 사실 스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엔 좀 궁금하던 게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야학', '전유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 비구 만동자가 부처님한테 크게 불만하는 내용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무상한가 안 한가, 또는 사후에 여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불만 내용에는 생사문제, 삶과 죽음 문제 해결, 또는 죽음의 극복 문제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문 제목을 보니까 죽어야 나를 본다,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스님께서는 굳이 삶과 죽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과연 불교가 죽음에 대한 종교인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죽어야 나를 본다는 말을 때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죽어야 될 대상은 모습으로 있는 나, 뭐 그걸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거기가 발견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는 참나. 그렇게 했는데 사실 어려운 거는 모습이 없는 나 무상이다. 모습이 있는 나를 집착하고 하는 것이 무상이고 공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경합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무상만이 지속되지 실제로 그 안에 있던 본래물은 흘러가 버리고 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상으로 아는 데는 무상이라고 알기만 하면은 무상을 공이라고 여실지전만 하면은 일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집착을 끊으라는 얘이기도 하지만 사실 집착을 끊는 게 더 큰 고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닌가? 모습이 있는 나를 고집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지만 그 고집을 끊는 게 오

▲스님: 왜냐하면은 믿지 않을 수가 없죠. 한 가정이 있는데 말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애 아무개가 부를 때에 대답을 안 합니까? 대답을 하죠. 또 아빠 그러고 부를 때에 대답하죠. 여보 그럴 때 대답하죠. 순간순간 그렇게 바뀌면서 대답하고 그러는 걸 어떻게 믿지 않습니까. 그게 믿으니까 모든 것을 이 모습이 있는 걸 이렇게 하고, 우리가 24시간 살아 나가는 게 바랄걸 같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삶이 없이 사는 것이니 함이 없이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 바 없이 하라

▲질문자: 그래서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오른쪽 왼쪽이 전도돼 있기는 하지만 그 거울을 보면서 아 저건 무상이다 공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더 크게 괴롭죠.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는 거꾸로 일 망장 비춰지는 내 모습이 좋지 저것이 헛 거다 또는 무상하다 공이다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마음에 더 큰 고통이 있거든요.

▲스님: 그것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고통이 더 있었다면 그건 더 어리석다고 봅니다. 그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됐을 뿐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되는 거고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을 안하면은 나가서 될 수 있고요.

▲질문자: 근데 그 어리석은 내가 더 좋아 보이니 어찌하죠.

▲스님: 그렇게 좋아하시면 그대로 좋은 거죠 뭐. 하하하.

▲질문자: 스님 감사 드립니다. 제가 스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친견할 수 있어서 부처님의 가피력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제가 평소엔 불교를 믿는 신자라고 생각하면서 느낀 점은 저희들이 태어날 때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도 이미 지어진 업은 녹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다고요. 그렇지만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인공을 찾을 수 있으면 제가 지금 느끼는 어떤 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것을 꼭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따라 道도 業도 됩니다 만법을 들이고 내며 살 수 있어

까? 모습이 있는 나 자체가 모습 없는 나 자체를 진짜로 믿고 거기가 맡겨야죠. 모든 걸 거기가 놓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생이면서 공심하면서 공체면서 공공하면서 우리는 공식으로서 만법을 들이고 내고 산다는 얘깁니다. 걸림 없이요. 그래야 만이 여러분의 의견 자체를 생각한다 해도 결정적으로 규정되고 안 되는 일이 없죠. 그렇게 결정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자기 하나가 아니라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기 아닌 참 자기가 하기 때문에 법으로 들어가죠.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세요. 부처님의 화신은 말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들었다 하면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또 금방 화해서 관세음여가 되고, 또 금방 화해서 지신이 되고 그렇게 바뀌니까요.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여러분이 산다 하더라도 바람 불어서 딱 없애지는 거와 같은 그런 기본에 살기 때문에 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도.

삶이 없이 산다. 삶이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한다면, 그 이유를 영 생각을 안 하세요. 바람 불어서 흰 날아가도 거기는 수분과 공기와 모든 질자까, 네 가지 질자까 다 흡수해서 결정적으로 화해서 바뀌는 거니깐 금방 구정물이 나와서 애를 태우고 집안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거 아니냐고 하죠. 그러니까 도가 떠 있는 게 아니라 당신 하는 대로 도(道)가 되고 사(事)가 되고 업이 되고 그러는 거지 다른 거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아주 간편합니다.

마음쓰이 곧 묘법

난 우리 스님네들끼리 그러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될 걱정이냐. 죽을까봐 걱정도 없고, 살까봐 걱정도 없고, 무슨 큰일 날까봐 걱정할 것도 없다. 자기가 자기 시자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는데 아니 시자가 스님한테, 불성이 스님이라면 스님,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선 거기가 맡기고는 그냥 입 속 뉘는데 어떡합니까. 자가 부한테로 가면 부(父)가 하니까 되고 부가 자(子)로 가면 자가 하나로 되는데 어떻게 둘이라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둘이 아니죠. 그런 반면에 일거수 일투족이 다 둘 아닌 도리로서 하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겁니다. 만법을 들이고 내도 걸림이 없고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다고 하고 예전에 묻고 그랬지만 우리 지금 이 상태가 그냥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전자에는 말도 잘 했는데 오셨다 리가 좀 저거하고 말도 좀 저거해서 여러 분한테 잘 전달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